

「신부의 수론의 테마야말로, 결혼의 테마」
- 국가 관계도, 남녀 사이의 애정으로부터-

신부의 석사 논문의 테마와 관련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해 신부를 처음으로 만나서, 수론의 테마를 질문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론(지도자의 영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초면의 사람에게, 이런말을 묻는 것은 실례라고 하며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직업병이라서 죄송했습니다.

<반론, 한틴톤 논문>

그런데 1993 년에 사뮤엘·P· 한틴톤 교수가 「문명의 충돌(원제: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라고 하는 논문을 써, 잡지 「중앙공론」에도 번역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후에 그의 예상이, 금세기초, 즉 현상을 알아 맞추었다고 해서 매우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서 독일 분단의 베를린 장벽이 없어져, 21 세기는 세계적으로 평화가 울것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분쟁, 뉴욕에서의 동시 다발 테러, 이라크전쟁, 등등의 세계 각지에서서 분쟁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20 세기말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즉 소련과 미국과의 냉전 구조가 붕괴하는 것과 동시에, 21 세기는 문명, 특히 종교의 대립이 격렬해져, 각국, 각지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예상대로, 크리스티교와 이슬람교의 대립등 으로 인해, 각지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민족, 국가, 지역간의 분쟁은 개인의 관계, 힘을 넘어 구조화 되어, 짜넣어지고 있고, 말하자면 숙명적인 것이라고 한틴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날만 한일이 일어나므로 피할 수 없다, 필연적인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틴톤론에는 찬성 할 수 없으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는 아무래도 「경제 발전 5 단계설」을 쓴 로스트우도 그렇습니다만, 단순하고 운명론적입니다. 각국의 사정에 의해, 다양한 발전의 형태와 루트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 관계도 개인 관계로부터>

이 민족, 국가, 지역간의 구조(숙명)가 생기는 것도, 또 이 구조가 변화해, 새로운 구조로 하는 것도, 원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한층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히 신부의 수론의 테마의 리더십(지도자)론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 서로 이해한다고 하는 개인의 동기, 의식의 문제입니다.

일본인의 신앙과 한국인의 신부의 두 명이 대학원에서 알게 되어, 서로 이해해, 결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만, 확실히 이러한 개인의 축적에 의해서 양민족, 국가간의 구조,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오버, 아니 기대를 담아 표현하면 국가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기도 하며, 여기에 참가되고 있는, 두 명의 결혼에 의해서 이번에, 친족이 되게 된 우리입니다. 두 사람을 여러가지로 만들어주어, 협력, 교류해 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단순,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시대에는(국가간의 구조에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식, 한층 더 손자, 증손자의 시대가 된 100 년, 150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이러한 개인의 제일보의 행동(그것은 정말로 개인적인 애정이라고 하는 동기라 하더라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국제 관계도 남녀 사이의 애정으로부터>

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말했습니다만, 간단하게 결론을 말하면, 국가간의 좋은 관계도 평화도, 개인의, 남녀 사이의 애정으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씀, 쓰시마방(對馬藩)에 있어 당시의 극히 곤란한 일본·한국의 시대의 평화 외교에 힘쓴 원록쿠향보(元祿享保)의 국제인·아메노모리호우슈(雨森芳州)를 꼭 신랑 신부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학자가 재평가된 것은 사후·250 년, 그것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의 국회 연설 안에서입니다만, 그 때, 일본측의 출석자는 아무도 아메모리의 실적을 몰랐다고 말해진, 잊을 수 있었던 사상가입니다.